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 창세기 39:1~41:57

요절 : 창세기 39:2,3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험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험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가을이 되었는데도 이례적으로 태풍이 설사 없이 여러 차례 방문해 오고 있습니다. 가을 태풍이 특히 남해안에 집중되고 있는데 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인생이 꼬꾸라지는 두 번의 큰 태풍을 맞았습니다. 부자집 아들이던 그가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 종으로 팔려 와야 했고, 주인집 마누라의 모함으로 급기야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두 번의 험한 태풍으로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시련을 이겨내고 험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창39장)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때가 요셉의 나이 17세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애걸하며 그 마음의 괴로움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창42:21) 그러나 형들은 매정하게도 그를 노예상에 넘겨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명품 채색옷을 입고 온 세상이 자기 것인양 재벌2세처럼 살다가 한순간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추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그의 나이를 감안할 때 한순간의 추락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을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꾸었던 꿈은 무엇이란 말인가! 다 개꿈이었네. 괜히 그런 꿈을 꾸어서 형들을 자극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구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낳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결정적으로 자신을 판 형들에 대해서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인생을 온통 복수의 칼을 가는데 소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7살의 젊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 주셨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험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험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험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복수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위대장인 보디발은 아마도 수많은 노예들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노예들은 아무리 용모가 빼어나고 출중해도 노예는 노예였습니다. 수동적이고 마지못해 움직이는 기질,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어둠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거침이 없고 완벽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은 ‘신과함께’

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보다 요셉에게 맡기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랑은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과 밭에 복을 내리셨습니다.(5)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 것도 요셉에 대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6) 그만큼 요셉을 신뢰하였고 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범사에 험통하게 되었을 때 사탄의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그에게 동침하기를 청한 것입니다.(7) 당시 귀족들의 사회는 성적으로 음란했습니다. 돈 많고 지체 높은 여인들은 하인들과 노는 것을 하나의 고품격 문화정도로 여겼습니다. 애인의 숫자는 여인들의 능력의 척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것을 애굽의 문화로 핑계하고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합리화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보디발 여사를 노예생활에서 풀려날 수 있는 희망의 열쇠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탄은 항상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해 옵니다. 27살의 혈기 왕성한 청년에게 정욕은 피하기 어려운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번히 이 정욕의 유혹 앞에 꼬꾸라 졌습니다. 삼손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이 정욕의 시험으로 넘어져 추락해 버렸습니다. 요셉이 이 유혹 앞에 무너지면 순결을 잃고 더 비참한 죄의 노예로 사정없이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실 수 없게 됩니다. 요셉은 현재 육신의 정욕에 무릎을 꿇고 파멸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이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길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년 요셉에게 있어서 큰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냈습니까?

첫째,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9b를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자기를 믿고 가정의 총무로 세워준 보디발의 신의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10절에 ‘날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했니까! 죄의 유혹이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여인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통사정을 했습니다.(11,12) 우리는 여기서 정욕의 죄에 대처하는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집안에 보는 사람이 없으니 들키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의 처의 관심사는 들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

람들이 없으니 자기의 행동은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듣기엔 듣지 않던 그것은 주인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고 죄라는 것이고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자 하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사람의 눈만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죄를 짓고 즐기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보디발의 처는 외적인 신분은 자유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죄에 매인 죄의 종 된 삶이었습니다. 반면 요셉은 몸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의 생각과 영혼은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요셉은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죄의 세력에 노출되면 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지고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 사람인가 인지하고, 죄악에 노출된 환경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요셉은 되도록 그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살전5:22)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다른 무엇보다 정욕을 피해야 함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딤후2:22) 능력 있는 그릇, 크고 값비싼 그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민하였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시119:9) 오늘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적극적으로 죄악된 요소들로부터 우리들을 지키고 피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발달로 ‘날마다’ 죄의 유혹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이런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물리치고 더욱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과 같이 요셉은 죄를 적극 물리치고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더욱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옷을 버려두고 달아난 것이 화근이 되어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셉은 진실되게 살고자 발버둥 쳤는데 현실과 상황은 더더욱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그의 인생은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도 비참한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될 때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장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다시 되풀이 될 때 깊은 절망이 찾아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보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보다’ 생각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주저앉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해주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고통중에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채색옷을 입고 있을 때 함께 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폭풍처럼 몰아친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그를 동경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두 번의 폭풍우가 몰아쳐 그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짜 형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유혹도 당하지 않고, 모함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감옥에 갇힐 위기가 와도 곧바로 감옥에서 풀려나든지,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볼 때 신자에게서 있어서 진짜 형통은 고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성공, 가난하지 않는 풍요, 질병이나 죽음에 없는 건강만이 형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내가 고난에 처할 수도 있고 성공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고난이나 성공 그자체가 아니라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주지 않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키워가십니다. 헬리어로 환난, 시련이라는 단어에는 ‘압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환난은 압력인데, 압력을 받으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내 안의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추하고 저속한 본성, 온갖 죄성들이 환난이라는 압력을 받아서 밖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진실하고 진지하게 몸부림을 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조각되어 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와 현상만 보며 울고 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에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생각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도 저 멀리 계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과 항상 함께 하사 각자 처한 삶의 현장에서 충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도록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하고 키워 가십니다.

만약 요셉이 평생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만 입고 잘나가는 시절만 보내었다면 그는 아마 왕자 병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은 온실과 같은 집에서 요셉을 끌어내어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와 같은 애굽, 감옥이라는 거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섬기고 낮아지고 고통당하면서 어떤 죄인인지 참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하셨습니다. 죄가 없지만 감옥에 갇혀 여러 억울한 죄인들, 절망하는 죄인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감옥생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죄가 없지만 일생을 죄인들과 함께 하며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깊이 체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감옥 같은 육신에 갇히시고 온갖 죄인들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요셉의 감옥생활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고 배우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을 만나도 복수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 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시련과 연단의 목표는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 지도자로 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연결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성은 자기 유익, 자기 자존심, 자기 기분에 어찌 그리 예민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사 죄인들을 섬기고 살리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대개 고통, 상처, 몸부림, 혼란과 실망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의 시련과 환난을 좋아하고, 이를 간구하는 사람은 아마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워 가시고 빛어가시되 때로 환난도 사용하십니다. 고난과 실패와 시련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힘들고 아픈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미소와 뜻이 숨겨져 있는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쓰실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성숙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삶의 ‘렌즈’부터 바꿔야 합니다. 즉 내 삶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지금 당장의 일들 앞에서 울고 웃기보다는 그 속에서 나를 쓰실만한 사람으로 빛어 가시고 나의 인격과 내면을 빛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한사람을 고난과 시련을 통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빛어 가십니다. (아멘!)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헛되고 의미없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당장 일이 안풀리고 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꼬였던 일들이 풀려지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II. 해석은 하나님께(창40장)

요셉이 옥에 갇힌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마도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을 것입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굶는 자가 왕에게 범죄하여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범죄하였다는 것은 반역죄를 말합니다. 이들은 관원

장으로 애굽에서는 매우 부유한 권력가였습니다. 이들은 궁중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을 주로 왕이 신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명하여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힌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기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을 보니 그들의 얼굴에 근심 빛이 가득했습니다.

보통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근심의 빛을 발견했다는 것은 요셉이 그들을 형식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 섬겼다는 증거입니다. 과거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왕자로 살면서 형들의 내면의 상처나 고통을 전혀 헤아릴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는 분노의 눈빛을 눈치 채지 못하고 천진난만하게 꿈 이야기를 하다가 더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고, 죄수의 자리까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많은 죄수들을 만나며 인간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본질적으로 그 내면이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고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후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회개시켜 회복시키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영적 지도자로 키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싶지만 그 길이 험난하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영접이 안되고, 신앙에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각자 처한 삶의 현장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죄인들을 이해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하고 키우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아서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만한 자로 빛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하들에게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지 물었습니다.(7) 그들은 하룻밤에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꿈을 꾸고 무슨 뜻인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8b)” 요셉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요셉은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흘 후에 전직이 회복될 것이라는 길몽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전직이 회복되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해석의 길함을 보고 떡 굶는 관원장이 자기의 꿈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악몽이었습니다. 요셉은 조금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가 사흘 안에 사형 당할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사흘 후에 모든 것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었지만 너무 기뻐 술을 많이 마셨는지 요셉을 까탈게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이 아니면 쉽게 잊어버

립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날아감으로 요셉은 다시 한 번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깊은 실망감을 안고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계속 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내어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지만 바로에게 해석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바로를 꿈꾸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2년 전에 요셉이 술맡은 관원장을 통해 풀려나게 되었다면 요셉은 애굽 왕 앞에 설 기회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죄수의 신분으로 안전하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고,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허송세월하는 듯한 2년의 감옥생활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계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III.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41장)

1~7절은 바로왕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일 강가에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양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 뒤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양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살진 소를 잡아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란 바로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식은 땀을 흘리다가 다시 잠이 든 바로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 가늘고 마른 이삭은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아무도 바로가 꿈의 감히 해석해 주지 못하고 있을 때 술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이에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셉을 불러냈습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14) 바로 앞에선 요셉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신하들 앞에서나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운명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애굽 온 땅에 일곱 해 동안 풍년이 있을 것과 그 후에 일곱 해 동안 흉년이 들어서 그 이전의 풍년은 다 잊어버리고 기근으로 온 땅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있는 사람을 세워 풍년의 때에 양식의 오분의 일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함으로 이후에 임할 일곱 해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가 감탄하여 신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

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즉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성대한 총리 임명식이 거행되고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최고급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여 주었습니다. 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용차인 최고급 에쿠스 리무진 버금수레도 제공하여, 그를 태우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앞드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왔고, 13년만에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시고 긴 연단 끝에 마침내 그 꿈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을 잊어 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바로는 당시 왕족들처럼 제사장 가문의 딸을 요셉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했습니다. 요셉의 아내인 아스낫은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요셉도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의 있었던 일들이 깊이 패인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깊은 상처와 고난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고난과 아픔들 상처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쌓아두면 언제가는 분노로 표출되게 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임에도 많은 고난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집합체이기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가을수양회를 통해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들이 다 치유되게 하시고 잊어버리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은 두 번이나 폭풍같은 시련이 몰아치는 상황중에서도 꼬꾸라지지 않고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 자존감이 높았기 때문도, 지혜가 뛰어나고 처세술을 잘 익혔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폭풍과 같이 몰아치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품에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파도 날 향해와도 주와함께 날아오리 폭풍기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는 요셉과 같이 죄와 허물로 인해 한순간에 낙원을 잃어버리고 죄인으로 추락하여 실낙원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과 풍파에도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받고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폭풍기운데서도 날아오르는 인생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